

보도

# 단과대 가용예산 4년 새 ‘절반’...정보공개 행정심판 제기

〈이동진 정경대학생회장〉

## 자율예산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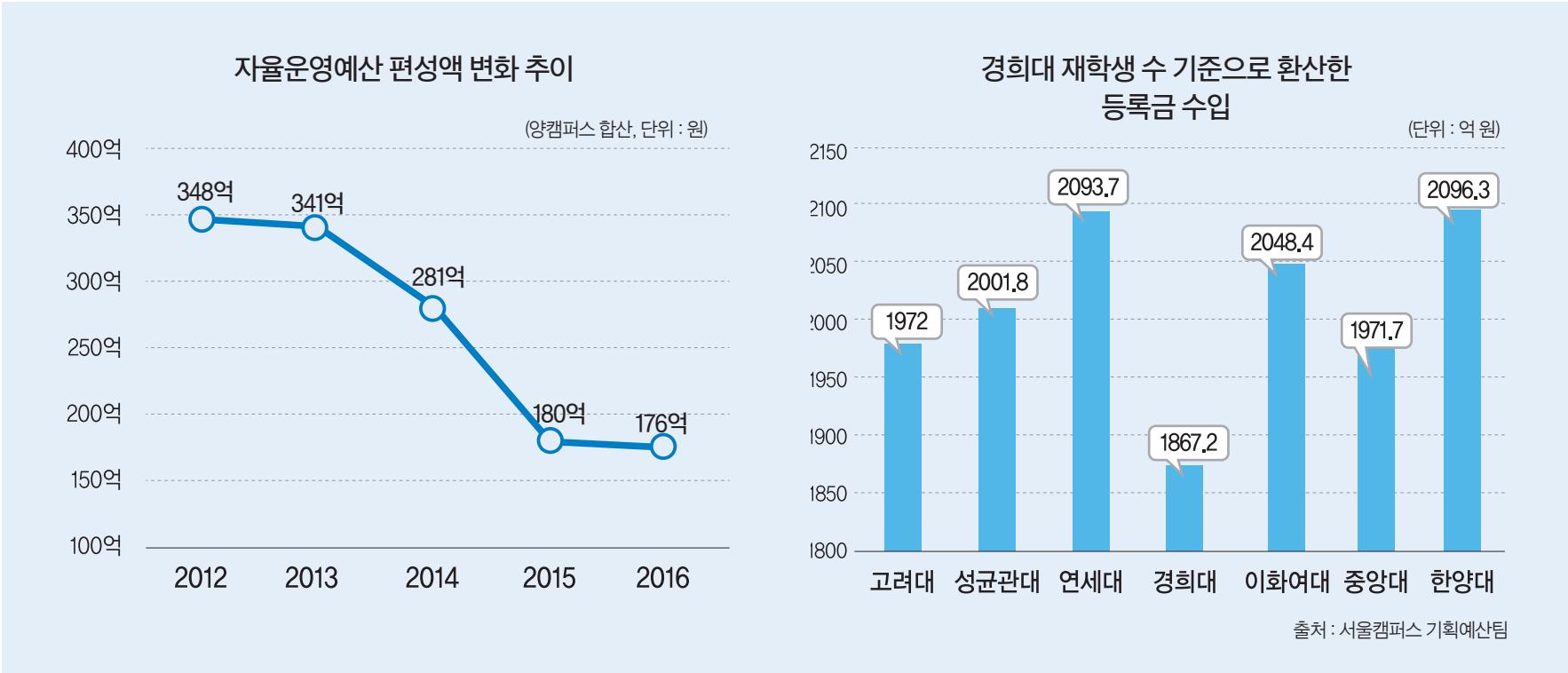
이수형 기자 dltd112@khu.ac.kr

지난 1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성원들이 ‘부총장교부금’을 각 단과대학에 분배하기 위해 모였다. ‘부총장교부금’이란 각 단과대학에 배정되는 자율운영예산을 보조하기 위해 부총장실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다. 하지만 대학본부로부터 부총장교부금을 약속 받았음에도 학생대표들은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 할당된 부총장교부금 지원액이 총 1억 원인데 반해, 행정비용과 학생경비가 포함된 자율운영예산 총액은 4년 동안 약 84억 원 감소한 탓이다. 양 캠퍼스 자율운영예산 합계액은 약 172억 원 감소했다. 올해 각 단과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율운영예산규모는 2012년의 절반 수준이다.

줄어든 자율운영예산 금액 중 일부는 단과대학이 지출하던 비용이 대학본부 소관으로 이전된 경우다. 우정장학 집행과 조교인건비, 직원인건비, 건축물관리비 집행 등이 대학본부 소관업무로 변경됐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항목 이외의 자율운영예산 감축분은 대학본부 측의 재정축소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자율운영예산 산출공식을 (고정사업비+변동사업비+기타 항목)×95%에서 (고정사업비+변동사업비+기타 항목)×85%로 변경한다거나, 변동사업비 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축했다. 심지어 자율운영예산 편성액 외 특별지원금(O&P교부금, 부총장교부금) 지원액 또한 삭감됐다.

서울캠 기획예산팀 측은 이에 대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으며, 타 사립대학 대비 등록금 수입이 대단히 적은 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과대학 자율운영예산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대학 학기당 평균 등록금(재학생 기준)은 약 3,696,200원으로 타 사립대학 대비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 한균태 부총장은 지난 5일에 열린 7차 등록금정책위원회(등책위)에서 “한양대는 우리보다 등록금수입이 230억 원 많다”며 “바꿔 말하면 매년 재정에서 230억이 적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Space21 기체상환 혹은 기타 고비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긴



축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서울캠 기획예산팀 이승민 계장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교비적립금은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자율운영예산 지원 감축분은 오롯이 대학본부 행정비용으로 흡수됐다”고 해명했다.

### 학교 측, 우리학교 등록금 수입 적어 지원 약속 불가능하다

단과대학 재정이 급격히 축소된 탓에 학생지원비와 실험실습비 지출 또한 함께 급감하고 있다.

미술대학 학생회 허건(조소 2011)회장은 “당장 다음 학기 모델수업에 필요한 모델료조차 없다”며 “판화실 기자재가 고장 나 교수님의 개인 작업실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는 목공용 장비도 부지기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단과대학 재정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 1월 2차 등책위에서 본래 총학생회(총학)가 대학본부에 요구한 특별지원금은 15억 원이다. 총학 단재민(미술학 2010) 부회장은 당시 10억 원의 학생지원비와 5억 원의 실험실습비를 추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학생지원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주거비, 교통비 등에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아 총학이 지난해 선거 당시 제시한 ‘교통비·자취지원금 1억 원 신

설’ 공약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한균태 부총장은 “학생 뿐 아니라 학교 곳곳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입 확충안이 없는 현실 상황에서는 15억 원 학생경비 지원약속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등책위 최종 합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 6일, 총학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1억 원은 축소된 학생경비를 복구하기에 턱없이 적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각 단과대학과 학생대표들이 감축된 자율운영예산을 되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에 자율운영예산 배정액 산출기준을 개정할 당시, 학생구성원이 참여하지 않는 ‘대학행정워크숍’에서 자율운영예산 삭감안이 발의됐으며, 자율운영예산 책정은 오직 대학본부가 결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등책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이 축소된 학생경비를 보전 받을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다음해에 자율운영예산이 또다시 삭감된다라도 학생들이 예산감축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게다가 특별지원금은 그 금액과 집행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단과대학 예산안을 작성할 때 고려되지 못한다. 또한 중운위가 집행기준을 매년 재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연출되기도 한다. 정량적 지표에 기대 예산을 배정

하면 특별지원금의 취지와 사용처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올해 중운위에서 “자율운영예산이 감소한 총격이 적은 편”이라며 500만 원의 분배를 요청한 정경대학은 1,080만 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학과 추계고적당사, 철학과 ‘필리아컨퍼런스’ 등 중요 행사 진행이 어려워 학과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한 문과대학은 당초 요구한 1,150만 원보다 적은 650만 원만을 지원받았다.

축소된 학생지원비와 실험실습비를 복구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이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재학생 수 등 정량적 지표를 고려해 분배한 결과다. 지난 1일, 중운위는 각 단과대학, 무용학부, 자율전공학과에 300만 원 씩 배정한 후, 재학생 수, 평균등록금 등을 고려해 나머지 금액을 분배했다.

### 경영상 비밀로 정보공개 거부 정경대학회장, 행정심판 제기

한편, 지난 4년 간 대학본부에 접수된 자율운영예산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5건이다. 이 중, 공개처리 된 건은 단 2건이고, 1건은 면담처리 됐다. 또한 비공개처리된 정보공개청구 중 4건이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 여부가 번복됐다. 대학본부는 자

율운영예산 관련 정보를 ‘경영상의 비밀’로, 공개될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는 관련 법률조항을 인용하거나 ‘방문열람만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정보를 통제해왔다. 자율예산 배정액 산출공식 등 ‘경영상의 노하우’의 공개여부 판단은 특히 엄격하다. 정경대학 이동진 회장(경제학 2012)은 행정감시 목적으로 지난 1일 미래정책원에 각 단과대학 자율운영위원회 회의록과 그 부속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는 거부당했고 이 회장은 현재 해당 정보 열람을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호텔관광대학 박한진(조리·서비스경영학 2014) 회장은 3차 등책위 당시 “조리서비스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학생들은 실습비를 53만 원 씩, 총 3억 원 정도로 납부하고 있지만, 해당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과대학 박원규 회장(사학 2014)은 7차 등책위에서 “총학생회 세미나실 보수비용 4,700만 원 집행과정, 자율예산 증감분석자료 등의 정보를 학교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학교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큰 폭으로 감축된 자율운영예산에 뒤늦게 행정감시에 나서고 있는 각 단과대학 학생대표들은 대학본부의 정보통제에 곤란을 겪고 있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는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www.facebook.com/khunews

http://media.khu.ac.kr/khunews